

사회

‘실력 광주’ 주역 컴백 ‘안순일 행보’ 큰 관심

교과부 교육지원본부장 취임...진보교육감들과 긴장관계 예고

‘실력 광주’를 이끌었던 안순일 전 광주시교육감이 지난해 6·2선거에서 진보교육감에 고배를 마신 뒤 정부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에 선임돼 눈길을 끈다.



교육정책과 유사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점으로 미뤄, 일단 진보교육감들과는 긴장관계가 예상된다.

안 본부장은 학생들의 실력에 비중을 두는 교육철학을 갖고 있어 진보교육감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 교육계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시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가 교육계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유지하는 자리를 맡은 점도 행보와 관련해 관심거리다.

안 본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학생들의 인성·창의성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진보의 차이가 없지만, 고교과정에서는 성적의 우열을 가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교육현장에서의 주요 임무를 소개했다. 그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재능을 일깨워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창의성과 재능이 실력이 되도록 연마해줘야 한다”며 학력신장을 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안 본부장이 교육계와 인연을 이어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앞으로 있을 공직 선거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거쳤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업무를 맡는 등 교육 CEO로서 존재감이 더 부각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한 측근은 “안 본부장이 현장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따지는 것은 선부터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안 본부장은 “안 본부장이 교육계와 인연을 이어감에 따라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앞으로 있을 공직 선거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거쳤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업무를 맡는 등 교육 CEO로서 존재감이 더 부각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한 측근은 “안 본부장이 현장에서 자신의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따지는 것은 선부터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친환경농지 옆에 제초제 뿌려

화순지역 오수처리시설 위탁업체...농민 반발

화순지역 오수처리 업체가 농지 한 가운데에 설치한 관련시설 주변 잡초를 없애기 위해 독성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수처리시설에는 우렁이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경작지가 인접해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간이오폐수처리장 관리가 좀...”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화순군 이서면의 한 농민이라는 글쓴이는 “우리 마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간이오폐수 처리장이 있는데 그 주변을 독성제초제를 사용해 주변의 풀을 모두 죽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글쓴이는 “이곳은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수원지 수계로부터 거리가 불과 4~5km 정도이며 하천과 우렁이농업을 쓰는 친환경농지가 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환

경인중조건이 농지 주변 5~6m에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적발시 인증이 취소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환경오염원을 줄이고 농민들을 계몽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산강환경청이나 화순군이 환경과 괴를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화순 상하수도사업소 측은 “화순군에 있는 오수처리시설 25곳을 모두 위탁업체에 맡겨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 지 모른다”고 밝혔다.

위탁업체 측은 “겨울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아 관측은 여름에는 잡초가 무성해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제초제를 뿌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위탁업체 측은 “하지만 모내기 전인 3~4월에 제초제를 사용하며, 그 외에는 기계를 이용하거나 직접 뽑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국회도서관, 광주 동구에 도서 기증

계림꿈나무도서관 등 3곳에 510권 비치

국회도서관(관장 유재일·사진 왼쪽)이 16일 광주시 동구 작은도서관에 신간 도서 510권을 기증했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박주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기증된 책은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510권으로, 계림꿈나무도서관, 학운동 작은도서관, 지원2동 작은도서관에 170권씩 비치된다.



국회도서관(관장 유재일·사진 왼쪽)이 16일 광주시 동구 작은도서관에 신간 도서 510권을 기증했다.

특히 동구는 지난 2008년부터 권역별 도서관 건립운동을 벌여 4곳의 작은도서관을 건립, 지역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집중 육

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도서관은 동구에 5800여권의 책을 기증했다. 유태령 동구청장은 “소중한 양서가 아동들의 지적 상상력을 키워주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서울대 “부모 소득 하위 50% 전액 장학금”

서울대가 부모 소득 수준이 하위 50%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장학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학래 서울대 학생처장은 16일 “소득 5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재원 마련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되는 학생은 지난해 기준 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만 9700원(소득 5분위) 이하이면서 순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가정

의 자녀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만 유지하면 된다. 이미 전액 장학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을 제외하면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0%를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가 2007년 장학금을 받고자 건 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신입생 14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17.8%였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Weather forecast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a table of regional weather conditions, and a 7-day forecast for Gwangju.

조선대 의전원 수시 모집 6.72대 1 경쟁

일반전형은 6.95대 1

16일 마감한 조선대학교 2012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6.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0명을 선발하는 이번 수시모집에는 총 403명이 지원해 지난해 5.33대 1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은 40명 모집에 278명이 지원하여 6.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광주·전남지역 고교 출신

자 특별전형은 20명 모집에 125명이 지원하여 6.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단계 합격자 발표는 오는 7월 22일이며, 최종합격자는 10월 5일 조선대학교 홈페이지(http://ibhak-md.chosun.ac.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입학전형 일정 및 유의사항은 조선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 International Insurance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2011년 가정폭력상담원' (2011 Home Violence Counselor) training course, including details on curriculum, fees, and application.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大山프리모남녀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featuring a '50% off' promotion and contact information.